한국계 중국 화학기업 쌍용차 인수

중국 최대 화학기업 한국 진출 ... 유기실리콘 모노머 세계 4위 부상

중국 최대의 화학기업인 난싱(藍星/Blue Star) 그룹이 국내 쌍용자동차 인수에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난싱그룹은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산하 중점기업으로 화학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금융, 수출입, 정보산업 분야까지 의욕적인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난싱그룹은 최근 쌍용자동차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프 생산과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산하 중차(中車) 그룹이 쌍용자동차와 기술제휴를 모색해오다 매각이 결정되자 아예 인수로 방향을 선회했다.

총 자산 200여억원(약 3조원)에 한해 매출이 100억여원에 이르는 난싱그룹은 자산규모와 자금조달능력 외에 입찰에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중국 합작의 새 계기 마련 ▷현 직원 고용 승계보장 ▷쌍용의 중국시장 진출유리 등을 내세우고 있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게 되면 현재의 경영체제와 고용승계를 보장할 방침이며, 난싱이 인민해방군과 지프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일반 시장에도 영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쌍용의 중국 자동차 시장진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자동차는 내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력모델인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의 판매호조로 2003년 매출이 1조71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고, 영업이익 1780억원(13.4%), 경상이익 1538억원(27.7%), 순이익 3062억원(154.3%) 실적을 올리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난싱그룹은 중국 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연합화공그룹 설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화학산업 원자재와 신자재 분야를 맡아 세계로 뻗어나갈 계획이다.

난싱그룹 류센추 부총재에 따르면, 아직 중국의 화학산업은 규모가 크지 않고 기술수준도 뒤쳐져 있어 중국 경제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WTO 가입 이후 국제경쟁에서 밀려 중소 화학기업들이 시장퇴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싱의 화학사업 수준은 종합적인 면에서 Dow Corning 등 세계 일류기업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신소재 분야의 유기실리콘 모노머 생산은 세계 6위로 현재 건설중인 10만톤 설비가 가동되면 세계 4위로 부상하게 된다.

Bisphenol-A는 4만톤 생산능력에 기술도 국제적인 수준이며, 필름 감광제는 Kodak과 Fuji 등에 납품하고 있다. 화공기계 분야의 이온막 가성소다 플랜트는 중국 총 생산량에서 1/3,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화학산업 역시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일부 산업과 마찬가지로 과잉 중복투자 우려가 일고 있다.

그러나 고분자 화학제품 자재는 수입량이 늘고 있으며, 자동차 수요급증에 따라 Glycol Methyl Alcohol 등 대체에너지 분야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난싱그룹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Bisphenol-A와 Bisphenol-A의 원료 부문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26>